

- 세입은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10년 지방세수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
  - 수도권과는 달리 아직 지방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있어 거래세 위주의 지방세는 전년도 수준에 머물 전망, 다만 지방소비세 도입 등으로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확대
  -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세원조정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로 소폭 증가
  
- 세출은 지방선거, 낙동강살리기 추진, 도청이전, 지역경제 활성화, 신성장동력 확충 등으로 재정수요는 꾸준히 증가
  - 新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 SOC투자를 통한 균형개발, FTA대응 농업경쟁력 강화 등으로 재정수요 증가
  - '09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방채 발행,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재정지출 확대로 세출여력 약화
  - 특히, 선거에 따른 공약사업 마무리, 신규 공약사업의 착수 등으로 새로운 세출수요 증가 예상
  
- 따라서 세출구조 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체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
  - ⇒ 예산효율화 및 재정건전성·안정성 확보

-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투자여건 개선
-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
- 귀농어업인 정착지원, FTA 대응 선진 농촌육성 및 환동해 중심 해양경북 실현으로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
- 3대 문화권 및 녹색·생태 관광자원 육성, 지역특화 관광 상품 개발 등으로 경북관광의 신 르네상스시대 개막
- 저출산 극복, 저소득층, 여성·청소년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망 강화
- 네트워크형 도로망 구축, 지역거점 유통·물류인프라 구축 등 지역균형개발 촉진
- 도청이전, 낙동강살리기 등 새경북 재도약 역량강화



**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싶은 풍요로운 경북 구현**